

FOCUS

FOCUS

- 레미콘 소비패턴의 변화 -

1. 레미콘 호칭강도의 소비구조 변화

80년대 레미콘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소비자의 레미콘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 통일된 레미콘규격의 일변도에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강도레미콘의 사용증

가는 건축구조물의 안정성에 중점을 둔 내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연도별 호칭강도 소비실태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90년 180kg/cm²강도의 규격이 42.2%를 점유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나, 97년에는 20.26%를 점유하는 낮은비율로 나타났으며,

[표 1] 연도별 호칭강도별 소비실적

호칭강도 (kgf.cm ²)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100	121,659	98,773	193,375	191,739	168,323	112,311	88,290	73,564
135	694,177	519,358	789,719	559,075	669,633	584,948	592,841	555,380
150	300,630	208,964	228,243	182,524	187,367	220,791	153,562	154,053
160	384,971	287,904	238,730	203,033	146,047	720,688	365,718	403,578
170	43,678	2,477	6,317	7,159	17,606	18,025	8,733	68,601
180	10,982,645	9,446,628	8,983,615	8,689,907	7,155,394	7,638,458	6,856,266	7,224,670
195	37,853	12,249	13,974	136,848	74,854	14,574	2,452	1,173
210	12,185,344	14,744,805	16,016,518	12,752,422	15,786,876	18,324,571	16,090,521	16,708,590
225	52,954	9,993	9,442	4,954	12,340	7,770	2,489	645
240	1,270,065	2,403,486	3,981,256	3,153,463	4,709,970	5,436,427	7,127,304	8,447,971
255	6,323	2,960	3,046	3,667	10,182	624	7,104	4,099
170	148,965	253,419	416,857	337,620	601,992	977,543	1,079,005	1,402,269
280	77,708	102,235	86,598	27,658	52,006	61,450	788,142	213,077
300이상	46,537	173,182	200,356	114,949	129,719	158,745	259,584	336,786
400이상	5,533	32,547	40,872	20,028	21,003	55,521	27,796	47,215
기 타	124,472	167,354	59,539	36,019	46,106	60,903	87,665	23,819
합 계	26,483,514	28,466,334	31,258,457	26,421,038	29,789,417	34,393,348	33,537,472	35,665,490

주) 각 연도의 레미콘 출하실적은 조사에 협조한 업체의 레미콘출하량 합계임

반면 210kg/cm²규격이 46.85%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다음으로 240kg/cm²로 23.69%의 점유비를 나타내 고강도레미콘 소비증가를 보였다.

300kg/cm²이상 규격은 90년도 0.19%차지하였으나 97년에는 1.07%로 5배 가량 소비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외국의 고강도레미콘을 사용한 건축구조물의 대형화, 고급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레미콘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강도레미콘 개발에 레미콘업체는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 레미콘 혼화제의 소비구조의 변화

혼화재료는 콘크리트의 발전을 떠받쳐준 중요한 재료이며, 혼화재료는 콘크리트의 기능에 커다란 가능성을 부여하게 되었다.

혼화제는 1985년에 KS F 4009에 콘크리트중의 공기량을 4%로 규정하여 AE제의 사

용을 간접적으로 의무화 한 이후, 콘크리트의 내구성향상, 시공성확보, 단위수량 저감을 주목적으로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혼화제를 사용한 레미콘의 소비실적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나타난 바로 레미콘의 사용량 증대에 따라 혼화제의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건축구조물의 내구성등 특성에 맞춘 새로운 혼화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립기술품질원으로부터 KS표시허가를 받은 업체는 모두 28개업체로 <표 3>에 나타내었으며, 콘크리트의 개발에 발맞춰 콘크리트용 혼화제분야의 많은 연구가 기대된다.

- 중소기업 대출 완화 및 금리 인하 -

중소기업의 은행에 대한 대출이 까다로웠으나 지난 12월 4일 재정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1월의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연12.43%로 10월의 13.14%에 비해

[표 2] 레미콘용 혼화제 소비실태

(단위 : m³, %)

년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구분	표준형	11,289	12,040	16,404	3,162	7,753	20,363	18,270	23,502
	지연형	340	766	1,324	364	1,414	1,544	2,073	1,942
	촉진형	907	873	700	1,051	1,077	867	571	1,582
	소 계	12,536	13,679	18,428	13,725	20,244	22,774	20,914	27,026
AE제		94	1,732	165	393	525	430	249	3,339
감수제		843	1,064	361	2,167	582	1,080	184	422
고성능감수제		115	280	1,054	1,473	1,051	3,243	544	2,156
조강제		162	631	1,011	923	663	707	367	1,006
지연제		5	167	4	401	267	192	49	166
방수제		-	4	2	12	-	746	153	216
실리카흙		-	-	-	-	-	844	-	5
기 타		-	-	2	167	19	810	21	16
합 계		13,755	17,557	21,027	20,113	23,351	30,826	22,481	34,352

주) 1. 90-97년도는 조사협조된 공장의 레미콘 제조에 소요된 혼화제소비량임.

2. 플라이애쉬 사용량은 95년(173개공장) 2톤, 96년(142개공장)6,307톤, 97년(184개공장) 133,312톤 임.

[표 3]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제조업체 현황

업 체 명	KS취득일자	대 표 자	전화번호	공장소재지
대주상사(유)	1988. 06. 04	한 여 근	032)812-1890	인천 남동구
(주)진용화학	1988. 07. 29	김 정 철	0445)36-7016	충북 괴산군
이건설업(주)	1988. 07. 29	김 상 한	0546)462-1290	경북 구미시
한국그레이스(주)	1988. 08. 16	지 창 환	866-0325	인천 남동구
삼용유화공업(주)	1988. 11. 01	서 대 용		경기 양주군
코리아마스터빌더스(주)	1989. 01. 28	이 치 완		경기 안성군
(주)세일콘	1989. 03. 06	이 영 우	0331)283-2279	경기 안성군
대동상사(주)	1989. 07. 24	이 의 상	032)817-3521	경기 용인군
호스록코리아(주)	1989. 09. 20	양 인 진	681-5025	인천 남동구
한일산업(주)	1990. 06. 04	이 정 일	0336)434-8876	서울 구로구
동남기업(주)	1991. 12. 30	김 종 섭	0461)742-6831	강원 홍천군
(주)한국에이디	1992. 02. 10	윤 양 순		충남 논산시
태영케미칼공업(주)	1992. 04. 04	안 계 상	0652)212-9512	충북 음성군
(주)우일화학	1992. 06. 10	이 재 구	032)515-9007	전북 전주시
동남산업(주)	1992. 06. 20	장 기 영	0431)234-1558	경기 김포군
중부실업(주)	1992. 09. 03	박 재 호	0333)63-4381	충북 청주시
백남화학(주)	1993. 06. 22	백 정 환	032)514-5154	경기 안성군
(주)대진세라폰	1994. 07. 24	박 세 정	0333)63-4381	인천 북구
씨카코리아(주)	1994. 08. 25	구 자 근	0333)666-6732	경기 안성군
(주)청송실업	1994. 12. 29	김 학 만	0331)32-7464	경기 화성군
(주)실크로드건설화학	1995. 01. 09	박 민 환	0455)72-8877	충남 태안군
(주)한진산업	1995. 07. 22	곽 한 용	0662)651-9812	전남 여수시
(주)호산	1995. 11. 04	김 광 희	042)933-0877	대전 대덕구
(주)이지콘	1997. 04. 30	이 정 섭	0522)311-828	울산 울주구
(주)쌍마기업	1997. 05. 30	송 수 만	0551)91-0172	경남 마산시
(주)금영	1996. 06. 11	박 정 수	0654)467-4520	전북 군산시
이건설업(주)	1997. 05. 23	김 한 상	0345)491-9290	경기 안산시
(주)대화	1997. 03. 26	송 창 순	0415)63-2351	충남 연기군

주) KS F 2560-콘크리트용화학혼화제, (1998. 04. 20일 현재 28개업체)

0.7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난 2/4분기인 5월 16.64%, 6월 16.39%, 3/4분기인 7월 15.97%, 8월 15.38% 등으로 은행에 대한 정부자금지원으로 금리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부실채권 매각 등을 감안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1월말 128조 6천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2조 3천억원, 97년말에 비해 5조 9천억원 늘어났다.

서울지역 어음부도율은 97년 12월 2.25%를 기록했으며 98년 1월 0.58%, 3월 0.49%, 5월 0.50%, 7월 0.60%, 9월 0.35%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난달은 0.20%로 비교적 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 내년도 SOC예산 2천302억 증액 -

정부가 제출한 85조7천900억원규모의 99년도의 예산안을 지난달 9일 국회 예결위원회를 열어 8천524억원 감액시킨 84조9천376억원으로 통과 시켰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제2건국위의 직접 지원예산 20억원 배정문제와 경제청문회 등 정치현안으로 인한 예산처리 통과의 진통을 겪었으나 시기적으로 IMF체제의 국가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가 시급했기때문이라는 점에 새해 예산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새해 예산의 세출 삭감규모는 공공근로사업 4천억원을 포함하여 총 2조3천754억원이며, 일반국도, 국가지방도 등 SOC투자에 2천302억원을 비롯하여 모두 1조4천919억원이 늘어났다.

당초의 정부안 보다 8천524억원이 순 삭감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는 4천322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증가율로는 0.6%포인트가 줄어든 수준이다.

SOC투자부문에 있어서 2천302억원의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고용창출과 물류난 해소를 위해 국도 및 고속도로건설지원, 광역교통망 구축등에 증액하였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책정된 국민주택기금 3조3천억원의 차입한도를 1조원 증액시켜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등에 확대 지원키로 하였으며, 4천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중 일부를 삭감해 고용효과가 큰 SOC투자와 중소기업지원에 돌리기로 하였다.

SOC 투자부문의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 SOC투자 사업내용 ◇

(단위 : 억원)

SOC사업내용	내역	금액
국가지원 지방도로		500
산업단지 진입도로		213
일반국도건설		600
국도대체 우회도로		400
고속도로사업	- 고속도로 조사사업 - 고속도로 건설지원	300
철도 건설		50
강릉공항여객터미널보강		30
광역철도건설		100
진도대교 타당성조사		3
해외건설인력 운용확대		91
굴포천 치수사업		5
속초항 시설확충		10
합 계		2,302

정부는 확정된 예산중 특히 경기부양효과가 큰 SOC사업을 중심으로 투자예산의 70%를 상반기중에 집중시키고 신속적인 통화공급을 통해 현재 7%수준인 실세금리를 5%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같은 내용으로 새해 경제 운용방향을 지난달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새해에 경기의 회복세로 2%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경제운용방향을 수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경제변화에 적극 대처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분야의 과제,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부양대책의 본격추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실업대책의 효율화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00년 이후 중장기 정책방향까지 포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내수경기와 직결되는 SOC투자예산 11조원을 상반기중에 투입하는등 주요 투자예산의 70%를 집중 배정하여 재정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일본 건설업계 ISO인증 활발 -

일본의 건설업계는 국제표준화규격(ISO9000)시리즈 인증취득의 열기가 확산되면서 전체 등록건수의 10%를 넘어섰다.

일본적합성인증협회(JAB)가 3개월마다 실시하는 ISO9000시리즈 각 심사등록기관의 심사등록건수, 업종별 건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JAB에 등록된 총 6천341건 가운데 건설분야는 654건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 조사에서 JAB등록건수 5천712건 가운데 건설분야는 529건으로 9.3%의 비율을 보였던 것이 1.0포인트 상승한 반면, 전기·전자분야는 6월 시점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조사에 따르면 6월말 시점의 등록건수는 JAB미등록분을 포함한 총합계가 7천457건으로 이 가운데 건설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7.2%였고 JAB등록분으로는 5천712건, 9.3%를 차지하고 있었다.

3/4분기 조사결과에서 총 8천315건(건설분야 비율 8.0%), JAB등록분 6천341건(건설분야 비율 10.3%)으로 증가했다:

이와같은 일본 건설업계의 ISO인증획득 증가분은 세계건설시장의 추세에 발맞춰 나가는 흐름으로 건설기술향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세계각국의 ISO열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 아파트분양 양극화 현상 -

건설경기 침체속에 아파트분양의 일부 회복기미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97년말부터 주택시장의 거래는 주춤했으나 98년말에 내년도에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주택거래가 활기를 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은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체들의 주택과 아파트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아파트 분양시장의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아파트 분양열기를 띠는 가운데에도 대형건설사의 분양율이 높아지는데 반해 중소건설업체의 아파트 분양은 미분양 사태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고 조사됐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계절적인 주택시장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가장 많이 공급되었던 서울시 11차 민영아파트 동시 분양에서도 여실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11차 분양의 최종 분양률을 살펴보면 지난 10차 분양률 74%에는 미치지 못하는 못하나 65.8%로 수도권의 분양시장의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분양에서 청약신청자가 모두 5,557명으로 청약률은 106.5%를 기록한 반면 분양률은 65%로 낮았던 이유는 입지좋은 지역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짓는 인기평형 아파트에 청약이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파트 입주 청약자들은 향후의 투자수익과 입주위험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위치 좋고, 안전한 대형건설사가 지은 중평형이상의 아파트에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그러는 가운데 중소건설업체들의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건설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계속 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건설사 부도율 감소 지속 -

IMF체제후 건설사들의 부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부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12월 9일 건설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급격한 부도세가 지난 11월 부도를 낸 건설업체는 모두 75개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일반건설업체가 21개사, 전문건설업체가 54개사로 나타났으며 전문업체 부도수가 지난 9월의 51개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건설업체의 부도가 줄어든 것은 IMF이후 경영상태가 열악한 건설업체들이 상반기중 대거 정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98년도 11월까지 건설업체의 부도는 일반과 전문을 포함 모두 1,779개업체로 97년도 같은 기간의 905개사에 비해 두배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수치로 본다면 98년도의 건설업체의 부도는 일반, 전문을 합쳐 약 1,800여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금년에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건설부문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건설경기의 회복을 점치고 있어 건설사의 부도율은 작년에 이어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내경기 금년 1/4분기 회복세 -

산업은행은 금년도 국내경기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8년도의 하반기부터 경기의 하향곡선이 완만해지면서 99년도의 전망을 밝게한 계기가 되었다. 지난달 10일 산업은행에서 1천21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BSI지수(기업경기 실사지수) 결과, 1/4분기의 사업개황 BSI지수가 86로 조사돼 지난해 2/4분기 60을 기록한 이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와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실제경기보다 BSI가 대략 1-2분기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금년 1/4분기의 경기저점 통과

를 계기로 점차 회복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SI의 이와 같은 수치는 금년 1/4분기에 자금사정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올해 1/4분기 BSI지수를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92, 중견기업은 88, 중소기업은 77을 나타내 대기업위주의 경기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종별로는 세계 반도체시장에서의 공급과잉이 완화되었고 cost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1/4분기에 100을 기록, 경기회복세를 주도할 선두업종에 이어 자동차, 철강등으로 경기회복의 기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 경기부양책 확대 -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월 12일 당정협의의 결과를 갖고 금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으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효과가 큰 주택·건설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각종 투자사업 예산을 금년도 상반기에 70%이상 배정하고 금년도 재정적자의 50%수준을 상반기에 실현키로 했다.

재정정책의 경기진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수경기의 효과가 큰 건설부문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및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할부채권매입등 소비자금융을 적극 확대하고 양도세 감면,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재개발관련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하였다. 또한 외국자본 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10개 정도 선정해 15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키로 하였다.

금년도 실업예산을 올보다 45.3% 증액된 8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실업대책 전달체계 및 공공근로사업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실업대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재경부 내년 경제성장률 2% 전망 -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월12일 99년도의 경제운용방향에서 우리경제는 국내총생산(GDP)기준 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경상수지는 200억달러의 흑자를 내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선에서 머물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0.5%보다 훨씬 낙관적인 수준으로, 내년 상반기에 0~1%, 하반기에 4~5%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특히, 2/4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상당폭의 플러스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국내·외 주요기관의 99년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경상수지는 작년 내수침체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390억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되며, 금년에는 내수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이에 수출도 증가하는 만큼 200억달러

의 흑자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환율, 임금,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안정세에 힘입어 3%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지난 9월 IMF와 4/4분기 정책협의시 예상했던 5%이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금년도 하반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3%를 웃돌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99월드콘크리트엑스포 -

금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최대의 콘크리트 전문전시회 '99월드콘크리트엑스포가 개최된다.

엑스포 기간중 1천100개 이상의 분야별 첨단기기가 전시될 예정이며, 75회의 세미나도 병행하게 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현장감있는 기술정보 획득 및 향후 콘크리트의 과제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주요 전시품목으로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믹서등 콘크리트관련 전반적인 품목들을 포함하게 된다.

【국내·외 주요기관의 99년 전망】

(단위 : %, 억달러)

경제지표	정부	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대우연구소	현대연구소	LG연구소	IMF	OECD
경제성장률	2.0	2.1	0.2	1.1	0.3	1.1	-1.0	0.5
소비증감률	-	0.9	-0.3	-1.8	0.5	-1.8	-4.6	-1.5
경상수지	200	193	320	227	243	227	200	-
소비자물가상승률	3.0	1.6	2.0	3.1	2.1	3.1	3.8	3.5
실업률	-	-	-	8.7	8.0	8.7	-	8.5